

다시 개항을 꿈꾸며

한국근대박물관 (인문학 플랫폼)

황순우

(주)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이사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2가 6-2, 7번지
대지면적	1,064.4m ²
건축면적	771.9m ²
연면적	1,601.94m ²
건폐율	74.41%
용적률	138.64%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설계기간	2009.12. ~ 2011.11.
공사기간	2012.03. ~ 2013
설계담당	김찬영, 전해영



상 인천 중구 일대 전경
하 인천아트플랫폼 거리 전경







좌 한국근대문학관 책방
우 한국근대문학관 바깥벽



© 魏在宇



© 魏在宇



© 한국근대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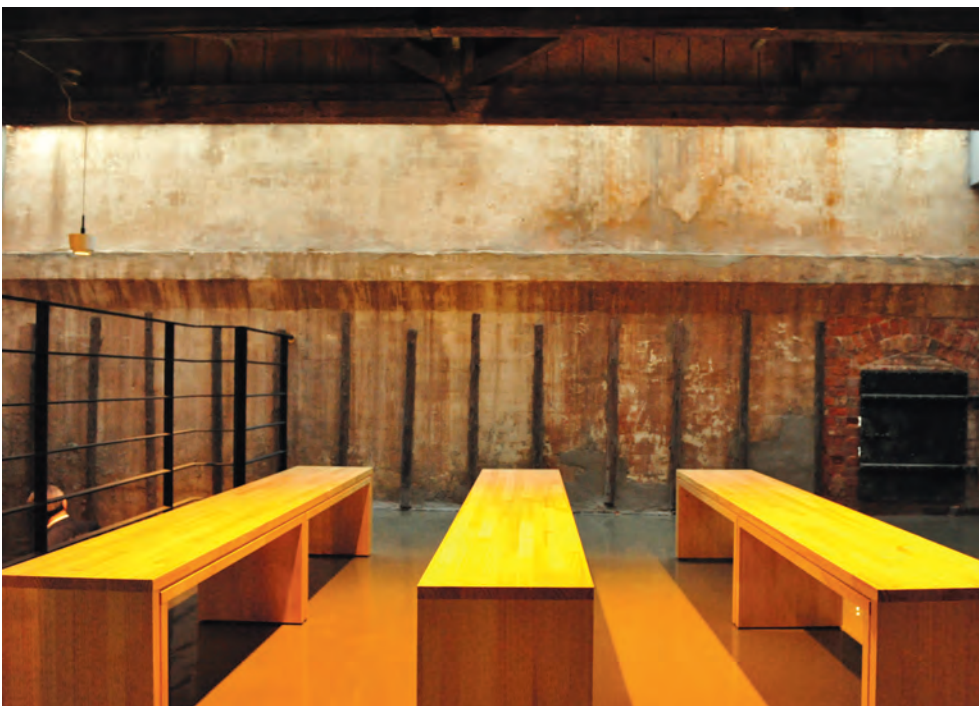


© 한국근대문학관

상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하 한국근대문학관 상설전시장



© 황승우



© 황승우

상 한국근대문학관 존치벽
하 한국근대문학관 내벽



2009. 12. 08.



2012. 05. 10.



2012. 11. 10.



2012. 12. 20.



2013. 01. 17.



2013. 01. 29.



2013. 02. 04.



2013. 03. 02.



2013. 09. 20.

한국근대문물관
개보수 과정
© 황순우

2013년 9월 27일, 근대도시 인천의 개항장에 한국근대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아트플랫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항과 근대화 과정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면서 조성된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간 철학이 이어져 만들어진 곳이다. 먼저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개항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계획과 지역 활성화 방안의 연계를 통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쇠락하는 원도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로환경개선과 전략지구를 지정하여 신포시장에서 차이나타운에 이르는 거리활성화를 꾀하고 생명력 있는 문화창조도시가 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설정하였다. 이것이 플랫폼(Platform) 조성이다. 플랫폼은 정거장처럼 잠시 머무는 곳으로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하는 공유의 공간이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세계와 소통하는 전략적 거점공간이다. 처음에는 주변지역을 변화시키고 정주성이 강한 시각예술의 플랫폼(인천아트플랫폼)을 구성(2009년)하였고, 근대화의 문화적 충돌 속에서 인천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인문학 플랫폼(한국 근대문학관)이 구성되었다. 또한 에너지와 역동성이 넘치는 공연, 음악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이를 지원할 문화재단이 이곳으로 이전했다.

인천, 제물포, 진센

여기 한 장의 스테레오 뷰(Stereo view) 사진이 있다. ‘코리아의 서쪽관문 제물포’라는 설명을 단 미국에서 발행된 사진이다.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검게 탄 얼굴의 조선인이 서구식 건물과 기선으로 가득한 제물포항 일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무기력한 조선인의 모습을 통해 이국적 근대도시의 풍광으로 변모한 제물포를 스스로의 손으로 일구지 못한, 그래서 제물포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위기의 동아시아
출처: Haper's Weekly, 1904년 1월 30일자

사진 속 조선인이 굽어보는 항구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은 세 가지가 있다. 전통시대의 지명 ‘인천’, 개항 이후 구미세계에 전파된 ‘제물포’, 제물포구에 새로운 식민도시로 건설되어 일본인들이 전유했던 ‘진센’, 이 세 지명은 각기 다른 세 시선을 대변한다. 즉 조선인의 민족주의, 구미인의 오리엔탈리즘, 일본인의 식민주의. 이렇게 각기 다른 시선이 공존하는 근대도시로 출발했다.

재창조

인천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최초로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도입된 곳으로 외국인 거주 지역에 건설된 많은 건축물과 도로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여타의 원도심이 그러하듯 주변지역이 낡고 쇠락해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었다. 개항 후 130년을 지나면서 인천은 근·현대화 과정에서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유산이 대립하며 존재해 왔다. 그렇듯 근대의 기억은 전쟁과 식민, 제국주의와 대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화 속에서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개항기의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어떻게 우리 근대문화 안으로 재영토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개항의 역사를 성찰하고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민주의의 틀로 형성된 부정적·긍정적인 요소들도 미래의 자산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은 개항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식민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지정학적 특성상 서울로 가는 관문으로 문물이 들어온 곳이자, 제국주의적 수탈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자취를 오늘의 시각에서 모두 없애 버릴 것인가. 그것이 과연 새로운 인천일까. 그런 고민을 놓고 인천의 문화계와 시민사회는 다양한 토론을 거쳐, 오히려 역사의 자취를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 가치에서 재해석하여 15만평의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보존 및 주변정비와 아울러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시설로 인천아트플랫폼을 만들게 된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공연을 하는 사람, 향토사학자, 도시계획가와 건축가의 많은 관심 속에 수차례의 토론이 있었다. 2000년 6월, 도시건축 포럼은 인천시에 개항장 일대의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개항기 근대건축물들을 활용하여 2004년 4월부터 긴 진통 속에 인천아트플랫폼(시각예술)이 2009년 9월에 개관하였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한국근대문학관(인문학 플랫폼)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9월에 문을 열었다.

개항과 문학관

그런데 왜 인천에 한국 근대문학관이 들어섰는가? 인천에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할 특별한 문인이 있어서인가?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근대 문인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 문인은 아니다. 김소월이나 한용운, 염상섭, 현진건처럼 교과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인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표적 문인도 없는 인천에서 왜 굳이 한국 근대문학관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물음에 이현식 한국 근대문학관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천이 개항 도시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주적인 의지에 의해 개항한 것은 아니었어도, 인천의 개항이 한국에서 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다. 인천은 서구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개항 도시이고 복잡한 한국근대사 만큼이나 한국적 근대성의 자취가 다양한 모습으로 구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다. 그런 도시에서 우리 근대문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표피적 근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근대가 무엇인가를 되문게 만드는 힘이 한국 근대문학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면, 근대적 개항이 이루어진 인천에서 우리 근대문학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야말로 근대문학의 가치를 계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책방



상량판

한국근대문학관은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수장고와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인천문화재단은 한국문학 및 인문학관련 자료 약 2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상설전시되어 있다. 또한 시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문학관 학교’와 ‘문학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학을 통해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곳, 인천 곳곳을 답사하는 길잡이로서, 그리고 문학을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인문학의 대중적 센터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보물창고

보물창고. 창고에 보물이 있어서 보물창고인가? 창고가 보물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사물로, 공간으로 다가왔을 때 흥분되는 것은 보물과도 같은 삶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리라. 어린 시절 소중한 애지중지 했던 장난감이 다락 깊숙이 숨겨진 채 잊혀 있다가 세월이 흘러 이사 가던 날 발견되었을 때, 보잘것없던 사물들은 우리에게 잊혔던 감성을 깨우는 반짝거리는 보물처럼 다가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 건물과 시간 속에 묻혀 있다가 초라한 모습이지만 보물처럼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

인천 중구 해안동에 있는 김치창고는 193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상량판을 보면 壬辰年 7月 16日(1892년)에 건축하였고, 건축주는 林市郎治이며 시공자는 대목수 上田市松이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건축주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많은 변형이 있었지만 120년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 건축행위는 시간 속에서 삶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재편하고 도시환경에 대응하면서, 자연과 도시의 자산을 파괴하기도 하고 진화하며 새롭게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120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건

축의 원형은 아니지만 도시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경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천정 속에서 자태를 드러낸 트러스는 견고함을, 타일과 몰탈 속에 숨어 있던 벽돌은 따스한 온기를, 뜯어낸 창문 너머로 빼꼼히 보이는 석축의 이끼는 생명의 위대함을, 걸어낸 지붕 사이로 쏟아진 햇살은 신비로움을, 백여 년 만에 드러낸 빨간 흙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머금고 있다. 터가 갖고 있는 음습한 기운, 건물이 간직한 침묵의 고요함과 어두움은 적막감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지만, 김치공장이 이사 가는 날부터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우며 땅을 읽고 터가 건물을 읽어가는 것으로 작업은 시작됐다.

시간성, 공간성, 일상성

지역과 장소는 공간이 만들어진 시간성과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그리고 삶의 생활양태로서의 일상성이 결합된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삶의 양식도, 공간의 기능도 재편된다. 이에 따라 공간의 구성은 달라지고 건물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양식이 나타난 벽을 보전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하였다. 하나는 몰탈이 발라진 거칠고 밋밋한 면을 그대로 두고 그 벽의 반대편은 벽돌 벽의 구조보강을 위해 세운 목재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유리직육면체로 감싸 단열과 방수 문제를 해결하여 보전하였다. 또 다른 작업은 도로면에 면한 몰탈로 발라진 벽을 일부만 긁어내어 용도를 바꾸어 개구부를 만들고, 막고 또 다시 만들었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여 도시의 시간성과 일상성을 읽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근대건축학회



© 한국근대건축학회



상 한국근대건축관 빈창고
하 한국근대건축관 천정



한국근대문학관 측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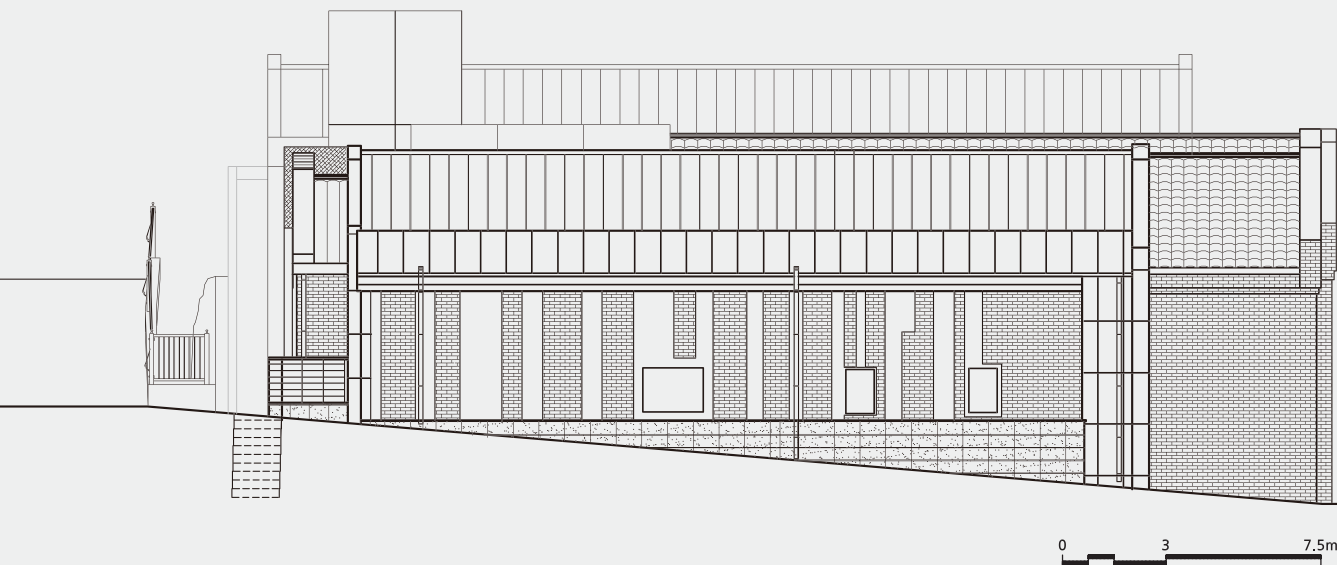


© 02-10



상 존치벽
하 바깥벽

한국근대문학관
좌측면도



오래된 미래

금이 가고 굽혀져 있는 벽돌벽,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위해 한 자가 넘는 흙을 머리에 이고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 세운 기둥들. 폐기되어 문이 막히고 시멘트가 발려져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오고 친근감이 느껴진다. 120년이 지나 쌀 창고에서 김치공장으로 변한 초라한 텅 빈 공간은 비록 한 자씩 달아낸 공간이 불법의 오명으로 남아 있지만 그간의 세월 속에서 문을 내고, 다시 막고, 창을 내고 다시 막고, 비가 새면 몰탈을 발라 고치며 일상 속에 대응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물결치듯 남아 있다. 굽힌 벽돌이, 녹슨 철문이, 덧바른 몰탈이 초라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말하고 있다.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물과 땅의 가치를 찾아내 어디를 비워내고 보존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창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트러스와 벽돌벽, 그리고 그 벽에 철로 만들어진 창과 문을 보존하고 배치의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두 개의 좁은 통로와 파도처럼 차에 굽힌 벽을 그대로 두었다. 또한 도시의 기능과 삶의 방식에 따라 용도는 수차례 바뀌면서 문을 만들기도 하고 방을 만들거나 벽을 헐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했던 그 흔적들을 보존하기로 했다.

개항되면서 만들어진 도시, 건물 앞의 도로는 매립을 하여 만든 도로(15m)이고 뒤 도로(6m)는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만들어 낮은 곳은 2m에서 높은 곳은 5m나 된다. 지형의 특성상 석축 밑으로 대지에 딱 찬 건물은 늘 습하고 축축했다. 대지를 침범한 건물과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비워내고 땅을 호호하게 하여 숨겨진 석축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 공터를 이용해 장비가 다니고 철거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했다. 재생작업의 철거란 수작업으로 하는 공정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고 철거된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철거한 재료(벽돌, 목재, 기와)는 다시 보수하여 건축 재료로 활용하였다.

© 황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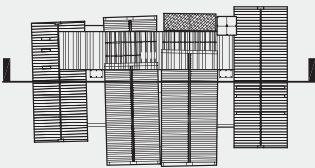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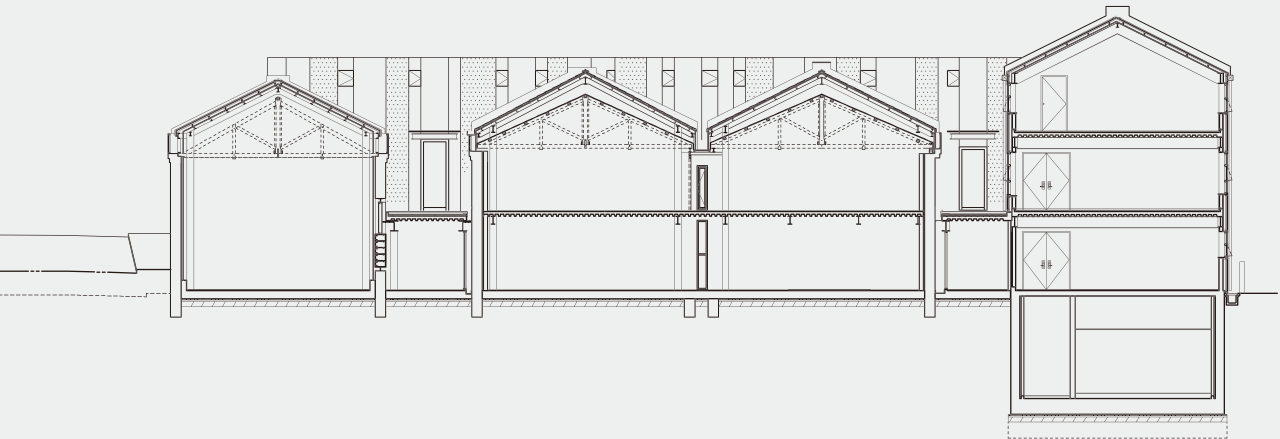
© 황수우



상 지붕철거
하 기초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2층에 전시 회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층고의 확보가 필수였는데, 1층의 바닥레벨(1m정도 차이)이 제각각이어서 기초를 보강하면서 바닥을 정지하였다. 비교적 안정화된 지질을 아트플랫폼에서 경험하였기에 할 수 있었다. 세 개의 창고 중 두 번째 창고는 다른 창고보다 50cm 가량 낮아 트러스를 해체하여 지붕을 들어 올리고 바닥을 파서 키가 1미터 50cm나 커졌다. 120년의 하중을 견뎌 온 노후한 벽의 무게를 덜기 위해 한자나 되는 지붕의 흙을 걷어내고, 철골기둥을 세우고, 보를 지붕과 천정사이에 결합시켜 내화·내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견뎌 온 세월만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근대문화관
횡단면도



KEY PLAN